

北韓의 政治情勢와 開放化政策

柳 錫 烈

- | | |
|----------------------|-----------------|
| I. 序 論 | IV. 開放化의 戰略的 目的 |
| II. 開放을 爲한 內的 準備 | V. 開放化의 政治的 影響 |
| III. 開放化宣言으로서의 「合營法」 | VI. 展望 및 結論 |

I. 序 論

最近 北韓은 對內的으로 이른바 '輕工業革命'을 내세워 人民生活의 向上을 追求하고 있으며, 對南關係에 있어서는 體育會談, 수재물자제공, 經濟會談 및 赤十字會談에 肯定的인 反應을 보이는 한편 國會會談을 提議해 왔고, 對外的으로는 3者會談, 「合營法」, 體育交流¹⁾ 등을 내세워 美·日을 비롯한 對西方接近을 積極化하면서 對外政策 전반에 걸쳐 漸進的인 門戶開放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北韓의 對外政策 變化的 조짐이 어느 程度 眞實이며, 北韓이 왜 그러한 政策變化를 追求하지 않으면 안되었을까 하는 것은 아직 精確히 판단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부족한 資料를 근거로 해서 추리만이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本 研究의 目的은 北韓이 決定한 開放化²⁾가 北韓政治에 있어서 어떠한 意味를 가지며 어떠한 影

1) 지난 9월 3日 메오희프 美國大學스포츠委員長은 北韓側 體育關係者들이 自身에게 美·北韓 間의 스포츠交流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을 非公式의으로 타진해 왔다고 했다. 「朝鮮日報」, 1985. 9. 5.

2) 원래 의미의 開放化는 (1) 外部環境과의 연속적인 接觸, (2) 體制의 동태적

響을 미치겠는가 하는 것을 分析하고 推理하는데 두고 있다. 이러한 目的을 두고 開放을 위한 內的 準備, 「合營法」, 開放化의 意圖, 影響 및 展望 등을 차례로 分析하고자 한다.

이러한 研究를 通해서 北韓의 政治와 開放化의 關聯을 찾아내는 것은 北韓의 開放政策을 올바르게 理解하는데 뿐만 아니라 그러한 開放化가 우리에게 미칠 影響을 推理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對應策을 講究하는데에도 必要한 것으로 생각된다.

Ⅱ. 開放을 爲한 內的 準備

北韓이 漸進的인 門戶開放을 決定하게 된 것은 一朝一夕에 일어난 事實이 아니다. 그러한 門戶開放을 위해서 그동안 北韓은 對內的으로 長期間에 걸쳐 나름대로 準備해 왔던 것을 볼 수 있다. 北韓의 開放化 準備過程은 특히 政治制度的인 側面과 住民生活的인 側面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 政治制度的 側面

北韓은 門戶開放을 위한 準備作業으로 政治制度的 側面에서 먼저 方針을 밝힌 후 후속조치로서 制度 및 人事改編이 뒤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70年 以前 北韓은 外國과 극히 制限된 接觸을 했으며, 그것도 共產國家들에 限定시켰다.³⁾

그러나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北韓은 近代化를 追求했고 海外로부터 先進技術과 資本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外交的인 努力을 기울였다. 그 결과 史上最初로 西方國家들과 交易을 확대했고 그들로부터 大規模의 生産設備

變化發展, (3) 內的 環境의 適應의 流動性, (4) 多様な 方法에 의한 目的達成 등을 包含하나 여기서는 주로 北韓의 對西方接觸을 의미하고 있다.

3) 1948~1966年 期間 北韓은 8個의 共產國家들과 條約을 맺었을 뿐이다. Peter Rohn, *World Treaty Index Chronological Sections*, vol. 4 (California: American Bibliographic Corporation, 1974), pp. 485~486, 參照.

를 導入했다. 西方國家들과의 交易은 1974~77年 期間 축적되는 貿易赤字와 外債을 감당할 수가 없어 다소 둔화되는 現象을 나타냈으나 그 후는 또 다시 增加되어 1980年 들어 西方國家로부터의 輸入이 總輸入의 67.9%를 차지했다.⁴⁾

1975年 金日成은 평양공장지배인에게 한 연설에서 “北韓은 共產主義國家들에게만 依存을 한다면 만족할만한 經濟發展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北韓은 原料와 機械를 輸入해 들여올 수 있는 資本主義市場을 積極 개척해야 한다”고 強調한 바 있다.⁵⁾

또 1980年 10月 제 6차 黨大會에서 金日成은 “現實은 對外貿易을 더욱 擴大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우리는 社會主義 나라들과의 貿易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世界 여러 나라들과의 貿易을 널리 發展시켜야 한다”⁶⁾고 主張했다.

한편 1984年 1月 25~27日 開催된 最高人民會議 第7期 3次會議에서 北韓 政務院總理 姜成山은 (1) 東南亞圈과의 交易增進 (2) 共產圈과의 5~6年間 貿易高 10倍 성장, (3) 貿易土台 擴張, 技術交流 및 經濟合作의 擴大發展을 위해 非修交國을 包含한 資本主義國家들과의 交流方針을 밝혔다.⁷⁾

北韓의 門戶開放은 이와같이 北韓의 最高指導者들이 方針을 밝힌 후 그에 맞춰 漸進的으로 政府制度와 人事를 改編해 나갔다. 그러나 北韓社會內에는 北韓開放問題를 두고 理念과 革命을 追求하는 強硬派勢力과 北韓의 經濟建設을 모든 部門에 優先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經濟官僚들 間에 오랫동안 政策上 異見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正日, 吳振宇,

4) *East-West Trade: The Prospects to 1985* (Congress of the U.S.: Joint Economic Committee, 1982), p.193.

5) Tai Sung An, *North Korea: A Political Handbook* (Delaware: Scholarly Resources Inc., 1983) p.121.

6) 「로동신문」, 1980. 10. 12.

7) 「內外通信」, 第407號, 1984. 10. 26.

吳克列, 林春秋, 全文燮 等 強硬派 勢力들은 朴成哲, 徐哲, 楊亨燮 等 穩健派 勢力들과 李鍾玉, 鄭浚基, 桂應泰, 孔鎮泰 等 經濟官僚들의 意見을 무시하고 革命路線을 강력히 追求하는데 큰 問題가 없었다.⁸⁾

1982年 4月 金正日이 經濟建設 優先을 무시한 채 金日成의 象徵物인 개선문을 築造한데 대해 反對意思를 表明했다가 解職을 當한 財政擔當 副總理 金昶鍊의 경우나⁹⁾, 비마暗殺爆發事件 以後 經濟官僚들이 有利한 立場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黨政治局 常務委員會에서 唯一하게 經濟官僚를 代表하고 있던 李鍾玉 總理가 職位를 喪失했던 것 등은 그러한 例가 될 수 있다.

한편, 金正日을 비롯한 北韓의 強硬派 勢力들은 體制에 손상을 주지 않는 制限된 範圍內에서 北韓開放을 漸進的으로 推進한다는 原則 밑에 制度 및 人事改編을 착수했다. 1970年代 후반부터 北韓은 年老한 經濟官僚들을 權力의 核心위치에서 除去하고 젊은층 經濟官僚들을 대거 登용하기 시작했다. 이와 아울러 開放化를 점차 수용할 수 있도록 政府組織의 面모를 바꾸었다.

北韓은 1983年 4月 5日 평양에서 開催된 最高人民會議 第7期 2次會議에서 議長團 3名을 全員 交替하고, 新任議長에 楊亨燮(社會科學院長, 祖國戰線議長), 副議長에 呂燕九(祖國戰線書記局長), 孫成弼(72年 以來 赤十字中央委員長)을 選出함으로써 最高人民會議에 대한 이미지를 刷新시켰다. 이는 前議長團이 老齡으로 非活動的이기 때문에 장년층인 新任議長團으로 交替시켜 '民主議會'로서 最高人民會議의 對外的 이미지를 改善하여 長期的 眼目에서 北韓社會의 漸進的인 開放에 對備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⁰⁾

1983年 9月 北韓은 重工業 中心의 第2次 7個年 經濟計劃의 失敗를 認

8) 柳錫烈, 「南北韓關係論」(서울: 정음사, 1985), p. 39.

9) 「內外通衢」, 第307號, 1982. 11. 26.

10) 柳錫烈, 「最近 北韓權力構造內의 變動分析」, (外交安保研究院, 1983), pp. 6~11.

定하고 2次 7個年 計劃의 主役인 李鍾玉總理를 政治局 常務委員職에서 解任시켰으며 1983年 11月 29日부터 12月 1日까지 開催된 黨 6期 8次 全員會議에서는 尹基福(政治局 후보위원에서 脫落), 崔載羽(副總理에서 脫落), 洪成南(平南道黨 責任秘書에서 脫落)을 인책해임시켰다.¹¹⁾

北韓은 門戶開放 準備를 위해서 이미 失敗한 重工業 中心의 경제계획을 輕工業 위주로 바꾸어 交易品 生産으로 對外經濟交流의 여건을 造成할 必要를 느끼게 되었다. 北韓은 黨 6期 8次 全員會議에서 安承鶴(權力序列 133位, 輕工業 專門家)을 黨中央委 輕工業 擔當秘書(28位)로 발탁하는 한편 最高人民會議 第7期 3次會議(84. 1)에서는 最高人民會議 豫算審議委員長으로 起用했다. 이와 아울러 經濟官僚 中 輕工業政策을 강력하게 推進시켜 나갈 수 있는 洪成龍(副總理), 金福信(副總理) 등도 起用함으로써 經濟開放을 위한 漸進的인 準備를 갖추게 되었다.¹²⁾

또 北韓은 1984年 1月 25日부터 27日까지 3日間 平壤에서 開催된 最高人民會議 第7期 3次會議에서 重工業 專門家로서 2次 7個年計劃을 主導해 온 李鍾玉總理를 해임시키고, 實務派 테크노크라트 가운데서도 李鍾玉보다 국제감각이 더 있는 輸送 專門家 姜成山을 새 총리로 任命하였다. 政府는 中央人民委員會 산하에 기존의 「第1經濟委員會」와 「第2經濟委員會」의 기능을 통폐합, 단일기구로 조정하여 對外經濟와 貿易을 담당하는 「經濟政策委員會」를 新設했는데 이것은 對外經濟活動을 包含, 전반적인 經濟活動을 집중관리하도록 하고 經濟政策을 수립하는 機能도 政府에 맡김으로써¹³⁾ 北韓의 對外開放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 李鍾玉總理를 黨常務委員職에서 解任시키고 政府의 副主席團에 任命한 것도 副主席團에 經濟代辦 창구가 必要했기 때문인 것으로 解釋된다.

이와같이 北韓은 政府의 組織 및 人事改編을 추진함과 함께 海外에 技

11) 「韓國日報」, 1983. 12. 10, 및 「內外通信」 第361號, 1983. 12. 9.

12) Ibid.

13) 「內外通信」 第407號, 1984. 10. 26.

術研修生들을 파견시켜 門戶開放을 위한 準備를 갖추었다. 1984年 北韓은 570名에 達하는 技術研修生을 海外에 파견했으며, 1985년에는 約 1,000名을 蘇聯, 東歐圈 뿐만 아니라 西方諸國에도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3月末 現在 約 240名을 海外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⁴⁾

이와같이 北韓이 技術研修生 海外派遣을 大幅 強化하고 있는 것은 北韓의 産業設備 老朽化 및 技術落後로 因한 生産不振을 打開하기 위한 것이며 特히 앞으로 對西方門戶開放에 對備하여 西方의 先進技術과 資本 導入을 보다 積極化하기 위한 것으로 判斷된다.

2. 住民生活的 側面

그동안 北韓經濟는 中央集權의 指令經濟體制, 經濟管理에서 黨의 指導優先, 生産活動에서 軍事編制에 依한 운영, 그리고 道德의 刺戟優先 등의 特徵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經濟는 指令體制에서 오는 硬直性, 經濟活性化 誘引缺如에 따른 勞動生産性的 低下, 技術革新의 沈滯, 그리고 量的 置重으로 因한 質的 粗惡性を 면치 못했다.

金日成은 北韓住民들의 勞動力 動員을 위해서 北韓住民은 (1) 地主와 資本家로부터 解放되어 自由롭고 幸福하다. (2) 革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物質的 貧困에 對한 고통은 참아야 한다.¹⁵⁾ (3) 南朝鮮人民들은 奴隸狀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口實을 붙여 指令經濟體制的 體質的 缺陷을 克服하려고 했다. 그러나 金日成의 그러한 革命精神 고취만으로 北韓經濟의 근본적인 缺陷을 퇴치할 수 없었고 오히려 重工業 中心의 經濟政策으로 因한 生必品 부족으로 北韓住民들의 不滿이 고조되었다.

그리하여 北韓은 社會의 開放을 앞두고 住民 生必品 생산증대를 통한

14) 外務部 執務資料, 1985. 4. 13.

15) 즉, 革命的 過程에서는 이른바 '革命的 樂觀主義'를 지니라고 촉구했다. 이는 언제나 革命的 勝리를 믿고 革命途上에서 제기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革命的 勝리를 위하여 끝까지 영웅적으로 싸워 나가는 革命精神과 氣風을 말한다. 「內外通信」第446號, 1985. 8. 2, 參照.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體制에 對한 忠誠心을 높이는 한편 輕工業 發展을 통한 수출상품의 다양화를 위한 準備을 갖추었다. 이러한 政策方向 轉換에 따라 北韓은 社會主義經濟의 特徵인 重工業中心政策을 수정하여 輕工業 中心으로 바꾸고 住民不滿 해소를 위해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 등에 對하여 先次的 解決을 強調했다.¹⁶⁾ 또 北韓의 宣傳機關들도 '生必品 否足이 住民不滿의 要因'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承認했다.¹⁷⁾ 뿐만 아니라 北韓은 사실상 '입는 問題' 해결을 위해 최근 「2.8 비닐론 연합기업소」의 生産能力 확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平南 順川지구에 10萬톤 규모의 비닐론 공장을 建設하고 있어 輕工業에 力點을 두고 있음을 分明히 했다.

한편, 金日成은 1984年 新年辭를 通하여 (1) 5個地區 前線(순천, 안주, 청진, 남포, 함흥)의 基本建設推進 및 人民들의 生活向上 (2) 消費品 增産을 通해 人民들의 物質文化 生活向上을 위한 輕工業 革命과 (3) 其他 農村經濟 機械化 및 住宅供給增大 등을 強調했다.

金日成의 이와같은 輕工業 革命 발언과 함께 金正日은 1984年 3月 31日 人民武力部長 吳振宇와 金福信(政務院 輕工業委員長) 등 黨·政간부들을 대동하고 평양에서 열린 輕工業製品 전시장을 참관하여 주로 학생복, 스웨더류, 담요류 등 의류제품을 시찰하고 '輕工業製品 生産의 전문화'를 위하여 '工場에 편의작업반 확충 및 家內 작업반 확대' 등을 方針으로 제시하였다.¹⁸⁾

金正日是 8月 3日 또다시 '輕工業製品 전시장'을 참관했는데 이날 展示場 참관에는 吳振宇, 總理 姜成山, 黨秘書 許談 등, 黨·政高位간부로부터 연형묵, 안승학, 홍성룡, 김복신 등 黨과 政務院의 經濟分野 人物들을 대거 대동했다. 展示場에는 北韓內 總 30여개 中央級 輕공업공장과 평양

16) 「로동신문」, 1983. 9. 8.

17) 「內外通信」, 第354號, 1983. 10. 21.

18) 85. 1. 28日字 「人民日報」는 北韓은 부녀자와 노인들로 '家庭作業班' 또는 '副業班'을 전국적으로 組織하여 生必品 및 消費財生産에 좋은 成果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내 지방산업공장들에서 生産된 의류, 가정용품, 주방용품, 일용잡화류, 문화용품 등 ‘人民消費品’을 종합 진열했는데, 그자리에서 金正日是 ‘人民生活向上은 黨活動의 最高原則’이라고 발언했고 이른바 ‘輕工業革命과 奉仕革命’의 必要性을 強調했다.¹⁹⁾

이와 때를 같이하여 政務院總理 姜成山은 輕工業擔當 副總理 金福信 등 經濟關係者들과 함께 北京을 訪問하고 趙紫陽 中共 首相과 회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는 中共側의 財政擔當 田紀雲 부수상, 석탄공업상 高楊文, 경공업상 楊沈 等 경제자료가 同席했다. 中共·北韓 兩側의 輕工業相들이 이와같이 輕工業分野에서 北韓의 對外開放과 住民生活向上問題를 놓고 相互協力方案을 협의했다는 것은 特別히 注目할 만한 일이다.²⁰⁾

한편 北韓은 11月 13~14日 兩日間 平壤에서 이른바 「人民奉仕 일군대회」라는 것을 개최하고 住民 편의시설 확충 및 상품공급사업의 개선문제를 토의했다.²¹⁾ 이 大會에서 北韓 政務院總理 姜成山을 비롯하여 黨 經공업담당비서 安承鶴, 수산위원장 최광, 경공업담당 부총리 金福信 등 關係責任者들이 多數 참석했으며 그들은 北韓 住民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식당과 청량음료 판매점을 늘리고 식료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對策을 토의했다. 또 12월 4~10일까지 열린 노동당 第6期 10次 全員會議에서는 1985年度 경제계획이 “輕工業革命과 消費財 生産增大를 통해 住民이 보다 文化的이고 풍족해지도록 하는데 重點을 두었다.”²²⁾고 선언했다. 1985년 들어 北韓은 個人소유물을 자유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自由市場을 급격히 開放하고 있어 平壤 등 도시에는 邑에 1個所, 지방에는 郡에 1個所씩 두고 있어 北韓住民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²³⁾ 이러한 北韓 內部的 움직임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北韓住民들의 不滿解消과 漸進的

19) 「朝鮮中央放送」, 1984. 8. 3.

20) 「中央日報」, 1984. 8. 11.

21) 「平壤放送」, 1984. 11. 15.

22) 「北韓中央通信」, 1984. 12. 11.

23) 「讀賣新聞」, 1985. 1. 31.

인 門戶開放 準備를 위한 포석으로 分析된다.

住民生活的 側面에서 開放을 위한 또 하나의 內的 準備는 北韓住民들로 하여금 金正日指導力에 대한 確信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權力承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狀況에서 北韓社會의 開放은 金正日의 權力承繼에 대한 위협적 요소로 作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北韓은 開放에 앞서 金正日의 권력기반을 철저히 강화시키고 住民들로 하여금 金正日의 指導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力點을 두었다.

金正日은 自身の 權力基盤을 強化하는 方法으로 권력세습에 批判的인 勢力을 權力의 核心에서 除去시키고 自身の 側近勢力으로 대치했다. 黨內에서는 黨의 政策路線을 최종적으로 決定하는 黨中央委 政治局 常務委員會에서 權力世襲에 批判的인 金一(死亡)과 李鍾玉이 脫落되었으며, 軍內部에서는 反金正日勢力인 老幹部들이 대거 숙청되거나 상징적인 자리로 밀려나고, 吳振宇(人民武力部長), 白鶴林(인민무력부 부부장), 金斗南(黨軍事部長), 吳克列(總參謀長), 金江煥(부총참모장), 尹致浩(人民軍總政治副局長) 등이 기용되어 金正日의 體制 確立을 위한 힘으로 作用하고 있다.²⁴⁾ 한편 政府內에서는 經濟發展에 最優先을 두는 李鍾玉, 정준기, 桂應泰, 金萬金, 김경련, 崔載羽 等 大部分 年老한 實用主義的 經濟官僚들을 밀어내고 安承鶴, 洪成龍, 金福信, 채희경, 김환, 姜成山 等 經濟官僚들을 起用하여 經濟再建보다 金正日 權力體制 維持에 우선을 두는 政策을 追求하고 있다.

이와함께 北韓은 住民들이 金正日의 指導力을 認定케 하기 위하여 金正日의 업적을 誇示하는 方法을 쓰고 있다. 金正日 世襲體制的 최대 취약성 은 正統性的 缺如로서 金正日은 自身の 正統성과 政治的 權威을 뒷받침할 고유한 實質的 기반확립을 必要로 하고 있다.²⁵⁾

이 目的達成을 위하여 金正日이 할 수 있는 것은 經濟部門에서 탁월한

24) 柳錫烈, 「南北韓關係論」(서울: 正音社, 1985), p. 29.

25) 「內外通信」, 第422號, 1985. 2. 15.

업적을 달성하고 南北韓關係에서 統一을 向한 主導力을 發揮하는 것이다. 이미 金正日は 經濟部門에서 이른바 輕工業革命을 通하여 住民生活의 向上을 約束하고 있으며 對外經濟開放을 通하여 北韓經濟 活性化를 目的하고 있다. 對南關係에서 金正日は '統一偉業의 운명을 한몸에 걸머진 統一意志의 體現者'²⁶⁾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最近 南北對話를 비롯한 南北韓의 藝術團과 故鄉訪問團 交換 등이 金正日の 빛나는 업적으로 제산이 되고 있다. 金正日이 權力基盤을 확고히 하고 北韓住民들이 金正日の 指導力을 받아들여 權力承繼에 對한 正統性을 確立한다면 北韓開放이 金正日 權力承繼에 위협적인 要素가 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確固한 權力基盤 위에선 金正日の 體制는 北韓開放을 보다 自信있게 推進할 수 있을 것은 分명한 일이다.

Ⅲ. 開放化宣言으로서의 「合營法」

1984年 9月 8日 北韓은 外國과의 經濟·技術交流 및 合作投資 유치를 目的으로 한 開放政策宣言으로서 「合營法」을 採擇하고 이를 公布하였다. 이는 開放을 通한 中共의 現代化 推進과 1979年 7月 全人大 第5期 2次 會談에서 採擇된 中共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에서 影響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저지한 바와 같이 北韓이 「合營法」을 採擇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동안의 準備期間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黨과 政府가 먼저 對外經濟事業擴大政策을 決定한 後 이를 추진하기 위해 責任부서의 人物改編, 制度的 장치 마련, 中共을 모델로 한 經營方式 검토 과정 등 일련의 準備作業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合營法」이라는 구체적인 立法節次를 거쳐 北韓의 對外開放을 對內外的으로 宣言한 것으로 볼 수

26) 「平壤放送」, 1984. 6. 20.

있다.

北韓이 採擇한 「合營法」은 그 內容으로 보아 意圖를 크게 세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經濟再建을 위한 外債유치 및 技術導入 촉진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北韓은 閉鎖經濟體制上에서 오는 矛盾으로 第2次 7年計劃(1978~84年)의 失敗를 인정하고, 차기 經濟개발계획의 수립 및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對外開放으로 海外企業의 직접투자 유치와 技術기술향 및 經營기법 이전을 도모하려는데 착안하고 있다.

北韓은 西方의 적극적인 投資 및 技術을 유치하기 위하여 中共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보다 投資條件을 상당히 완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그 예로서는 (1) 外國投資 출자비율 하한선 규정의 삭제, (2) 所得稅 감면조건 시한 완화, (3) 對外市場에서 物資輸入時 關稅 면제, (4) 北韓保險 加入의 의무화 규정 삭제, (5) 北韓의 원자재, 원료, 필수품 구매조건 완화, (6) 海外銀行에서의 구좌개설조건 완화와 (7) 利潤에서 직공 장려 및 복리기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 등을 들 수 있다.²⁷⁾

1985年 3月 29日 北韓의 尹基福 中央人民委 經濟政策 副委員長이 訪北中인 日本의 共同通信 취재단에게 밝힌 「合營法」 시행세칙에도 北韓의 그러한 意圖는 잘 나타나 있다. 尹基福이 밝힌 시행세칙은 (1) 출자비율은 쌍방의 合意에 따라 정하되 이익은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2) 合營期間은 5年程度로 하고 合意에 依해 期間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3) 운영자금 및 이익의 外貨送金은 제한이 없으며 은행구좌에 잔고가 있는 限 얼마든지 송금할 수 있다. (4) 海外로부터의 자재구입은 과세를 면제토록 한다는 것 등이다.²⁸⁾

둘째는 北韓의 開放을 앞두고 「合營法」制定은 金正日 후계체제의 보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즉 北韓은 金正日 후계체제의 보존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選擇的인 開放을 통해 金正日體制의 安定

27) 柳錫烈, “北韓의 「合營法」制度의 意味”, (외교안보연구원, 1984. 10. 4).

28) 「中央日報」, 1985. 3. 30.

化 및 發展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北韓은 완전개방을 억지시키고 「合營法」을 통한 選擇의 開放과 필요시 金正日體制的 보존을 위해서 또다시 閉鎖體制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體制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合營을 막는데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

「合營法」內容 中에서 (1) 合營當事者들은 모든 活動에서 北韓의 法규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어, 필요하면 合營會社가 北韓住民과의 接觸을 일체 단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것, (2) 北韓 對外經濟機關의 承認, 北韓 海당기관에의 등록 등의 절차를 밟게 하고 있어, 北韓當局이 스스로 인정한 상대가 아니면 合營當事者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 (3) 會社의 빚에 대하여 合營當事者들은 출자꾼 안에서만 責任을 지고, 출자꾼을 상대편의 당사자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第3者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北韓當局은 필요시 合營會社의 解散을 유도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 (4) 會社종업원의 採用은 「中外法」과는 달리 北韓法과 合營 쌍방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엄격한 규제를 해놓음으로써 體制保存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종업원 採用을 불가능케 하고 있다는 것, (5) 所得稅 감면은 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北韓當局의 임의 결정에 따라 體制保存에 도움이 되지 않는 會社에 대하여는 오히려 불리한 대우를 해 줄 수 있다는 것, (6) 「中外法」과는 달리 예비기금의 규모와 매년 조성비율은 따로 定하도록 규정하고 토지사용료까지 지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合營會社 內에서 北韓의 발언권을 높히려 한 것, (7) 協議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紛爭은 北韓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하거나 쌍방의 합의에 따라 第3國의 중재에 심의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등은 北韓이 필요한 때 惡用할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한편 尹基福이 밝힌 (1) 100% 外國投資는 인정치 않는다. (2) 經濟特區 신설은 中共실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北韓은 特區를 만들 생각이 없다. (3) 「合營法」은 北韓經濟體制的 改革이나 방향전환이 아니라는 것²⁹⁾도 같

은 意味에서 풀이된다.

세째, 「合營法」은 北韓의 對外關係 改善에 目的을 두고 있다. 「合營法」을 통한 北韓社會의 開放 또는 開放의 제스처로 중래의 철저한 閉鎖・暴力集團이 開放을 통한 對內外的인 變化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으로 이미지를 改善토록 하여, 對外關係 改善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특히 버마 암살폭발사건 이래의 國際的 고립 탈피를 시도하고, 日本의 對北韓 接近을 유도하는 한편 韓・日 間의 結속강화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北韓의 經濟建設을 위해 武力統一路線을 포기한 것처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또 평화공세를 벌임으로써 美國과 對話의 길을 열 수 있는 3者會談 또는 對美單獨會談 등의 推進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IV. 開放化의 戰略的 目的

최근 北韓이 追求하고 있는 開放化의 戰略的 目的은 여러가지 側面에서 分析될 수 있을 것이다. 그중 몇가지 重要的 것을 추려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北韓이 開放化를 통해서 追求하는 戰略的 目的은 當面한 經濟的 難關을 克服하는데 두고 있다.³⁰⁾

그동안 北韓은 과중한 軍事費 負擔과 과다한 兵力保有로 인한 勞動力 부족, 外貨부족으로 生産設備 近代化 지연, 年間 수출액의 2.5 배(35億 달러)나 되는 外債危機와 되풀이되는 經濟計劃의 失敗 등으로 北韓住民들의 經濟的 참상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胡耀邦 中共黨총서기는 1984年初 中共을 訪問한 레어드 前美國防長官과 만난 자리에서 “韓國과 北韓의

30) 北韓은 經濟不振을 타개하기 위해 中共式의 開放經濟體制로 方向을 바꾸고 있으며, 中共을 통해 美國과 日本의 協力을 기대하고 있다고 日本의 「東京新聞」이 1984年 8月 12日 報道했다.

經濟力이 앞으로 5年 以內에 7對 1의 격차를 보일 것”이라고 北韓의 어려운 실정을 솔직히 是認한 바도 있다.³¹⁾

北韓은 이러한 經濟的 危機를 모면하는 방편으로 그동안 北韓住民들에게 철저한 耐乏生活 강요와 革命雰圍氣를 조성함으로써 住民統制를 강화시켜 왔다. 그러나 北韓은 종래의 그러한 強壓의인 方法과 共產主義國家들에게만 依存해 오던 閉鎖政策으로는 北韓經濟를 活性化시킬 수 없음을 認定하고 西方先進國家들로부터 技術과 資本을 끌어들이려는 戰略的 目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²⁾

둘째, 北韓은 그러한 계기를 利用하여 美·日을 비롯한 西方國家들과 政治的인 接近을 꾀하자는 것이다. 北韓은 合營을 통한 對西方經濟接近을 追求하고 있지만 經濟接近은 政治·外交的인 接近의 前段階임이 分明하다. 특히 北韓이 蘇聯側으로 지나치게 경사되는 것은 中共은 물론 美·日 등 西方諸國들이 볼 때도 바람직한 일이 못되며 오히려 경계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北韓의 對蘇偏向은 美·日을 비롯한 西方國家들의 關心을 北韓으로 돌리게 하는 決定的인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그런 계기를 이용하여 美·日과 접근해 보자는 계산으로서³³⁾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은 北韓이 政治·外交의으로 추구하는 對美單獨會談이나 南北韓·美國 3者 會談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北韓은 門戶開放戰略을 통하여 自身の 安保能力, 對南 공격력을 強化하려는 것이다. 北韓은 南侵戰略을 끊임없이 追求하는 한편 韓國으로부터 받는 軍事的 威脅을 最少化시키는데 力點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每年 年例의으로 시행하고 있는 韓美合同軍事訓練인 「Team

31) 「韓國日報」, 1984. 9. 11.

32) 北韓제일의 近代工場인 大安機械綜合工場 李春錄부지배인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技術’이라고 말했다. 「日本經濟新聞」, (1984. 9. 28 參照).

33) 1984. 10. 23. 鄧小平은 訪中한 스즈키 前 日本首相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北韓이 現在 開放政策을 取하고 있음을 지적, “日本の 企業들도 당장의 利潤만을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北韓의 이러한 노력에 적극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朝鮮日報」, 1984. 10. 24.

Spirit을 北侵을 위한 準備訓練이라고 非難한바 있으며, '韓·美·日軍事同盟' 및 '日本 軍國主義의 부활' 운운하면서 그들의 安保가 심각하게 威脅을 받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또 北韓은 韓國의 軍事力이 상당히 增強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南韓에는 상당한 數의 美核武器도 設置되어 있는 것으로 主張하고 있으며, 軍事力도 뒷받침할 수 있는 經濟力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그들이 받는 安保威脅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³⁴⁾ 따라서 北韓은 對西方門戶開放 추구를 對蘇 最新武器 導入戰略으로 活用함으로써 그들의 이른바 '安保能力'은 勿論 對南 공격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째, 北韓은 金正日 權力承繼의 보다 유리한 條件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金正日是 오늘날 北韓의 權力 대부분을 장악하여 北韓住民들을 統治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權力을 承繼할 만한 正統性이나 력력한 공로를 세운 일이 없어, 住民들의 全的인 支持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金正日이 住民들의 支持획득을 위한 正統性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住民들의 生活向上과 南北韓關係에서 '統一偉業의 운명을 한몸에 걸머진 統一意志의 體現者'³⁵⁾로서의 役割을 담당하는 것이다. 北韓은 그동안 住民들에게 機會가 있을 때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革命의 過程에서는 이른바 '革命的 樂觀主義'를 지니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金正日是 그러한 方法으로 더이상 北韓住民들의 희생을 강요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生必品 生産을 위한 輕工業革命과 門戶開放을 試圖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며, 北韓門戶開放의 成果는 곧 金正日의 업적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北韓은 '南朝鮮革命'의 決定的인 時期를 위한 분위기를 造成하는데 着眼하고 있다. 北韓은 우리 政策의 취약 時期의 選擇, 先進化 推進

34) *Pyongyang Times*, May 26, 1984. and *New York Times*, May 26, 1984.

35) 「平壤放送」, 1984. 6. 26.

過程에서 나타날 經濟·社會의 마찰, 對立要因의 擴大 等 國力の 分散과 社會의 不安이 심화되는 情狀을 暴力赤化 侵略의 마지막 機會로 잡고 있을 可能性이 크다. 특히 1985 年에 들어서서 韓國社會가 學生들의 연이은 데모와 美文化院 점거사태 및 12代國會가 與野間에 치열한 公방으로 政局이 앞으로 매우 不安할 것으로 豫見하는 것 같다. 이러한 狀況에서 北韓이 對西方門戶開放 等 平和를 위장하면, 北韓이 期待하는 '決定的 時期'가 다가올 것으로 볼 可能性이 높다.

V. 開放化의 政治的 影響

北韓의 開放化가 極히 制限된 範圍內에서 漸進的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中·長期的인 側面에서 北韓의 政治에 미치는 影響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北韓의 一人獨裁 閉鎖社會는 開放化로부터 오는 政治的 影響을 最少化시키는데 力點을 둘 것이므로 短期的인 次元에서 큰 政治的 影響은 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다.

1. 理念(主體思想)

金日成의 主體思想은 對內的으로 '革命과 建設을 勝利로 이끄는 불멸의 革命的 기치'³⁶⁾이며, 對外的으로는 '世界革命 발전의 모든 경험을 개괄하고 世界的 규모에서 革命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마르크스-레닌주의'³⁷⁾라고 주장함으로써, 北韓 內外政策의 基本方向을 정하는 根本理念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北韓은 '은 社會를 主體思想化시키는 것이 共和國政府의 最終目標'³⁸⁾이며, 北韓勞動黨의 모든 路線과 政策은 主體思想으로부터 출발하고 主體思想으로 貫철되며'³⁹⁾ 主體思想은 北韓의 모든 政

36) 「朝鮮中央放送」논설, 1979. 11. 20.

37) 「哲學辭典」(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231.

38) 金日成, 北韓政權樹立 30周年 紀念演說, 「로동신문」, 1978. 9. 9.

39) 第5次 黨大會의 金日成報告演說文, 「로동신문」, 1970. 12. 2.

策⁴⁰⁾과 黨 및 國家活動의 확고부동한 지침' ⁴¹⁾이라고 주장함으로써 主體思想이 北韓의 革命과 建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단합과 동원의 행동지침임을 밝히고 있다. 金日成 主體思想은 北韓의 革命과 建設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自主的이고 創造的인 2대 입장을 견지하는 思想으로서, 思想에서의 主體,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를 지도적 원칙으로 삼고 있다. 自主의 입장이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의 머리로 사고하여 자기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革命精神을 발양하여 자기문제는 어디까지나 자기자신인 責任지고 풀어나가는 태도'이며 創造的 입장은 '교조주의를 버리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特性에 맞게 적용하는 태도' ⁴²⁾라는 것이다.

對外關係에 있어서 主體思想이란 모든 對外問題를 '獨自的으로 自己나라 實情에 맞도록 自體의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이 追求하는 開放化도 이 테두리 안에서만 可能한 것이다. 北韓의 開放化는 思想, 政治, 軍事的 側面을 무시할 수 없으나 主된 目標가 達成된 北韓經濟의 活性化에 있느니 만큼 主體思想에서 '經濟에서의 自立'原則에 의거해야 하는 것이다. '經濟에서의 自立'이란 自力갱생의 原則에 따라 自主的 民族經濟를 建設하는 것을 意味한다. 金日成에 의하면 自力갱생이란 '自己나라 革命은 基本的으로 自己의 主體的 力量에 의거하여 완수하려는 철저한 革命的 立場이며 自己나라의 建設은 自己人民의 노동과 自己나라의 富源으로 進행하려는 自主的 立場' ⁴³⁾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日成은 '經濟에서의 自立'이란 결코 閉鎖政策을 의미하거나 國際的 經濟協力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外勢에

40) 「金日成著作選集(4)」(평양:로동당출판부, 1968), p. 533.

41) 「朝鮮中央放送」, 1982. 4. 1.

42) 1972. 4. 金日成의 60돌 생일기념 「社會科學者大會」에서 社會科學院院長 楊亨燮의 演說, 「共產圖資料」1972. 4. pp. 23~51.

43) 「金日成著作選集(4)」(평양:조선로동당출판부, 1960), p. 537.

의한 경제적 의존과 他國에 대한 경제적 복속 등을 반대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82年 3月, 金正日도 「主體思想에 對하여」라는 論文에서 “自力생생의 原則에서 自主的 民族經濟를 建設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아 매고 經濟를 建設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自立經濟는 다른 나라에 經濟的 支配와 壓迫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적인 經濟協調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⁴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問題는 ‘外勢에 의한 經濟的 依存’과 ‘自發的인 국제적 經濟協力’의 판단기준이다. 金日成의 주관적 기준에 의하면 北韓이 蘇聯 또는 中共으로부터 받는 經濟원조나 美·日을 비롯한 西歐로부터 얻는 차관은 후자의 경우이고, 韓國이나 東歐諸國들이 西方國家들과 경제적으로 제휴하는 것은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이 제정한 「合營法」에 의한 海外資本이나 技術을 유치하는 것, 外國으로부터 원조를 얻는 것과 經濟交流를 갖는 것 등은 자발적인 국제적 경제협력으로 主體思想과 조금도 어긋날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國防에서의 自衛’ 原則도 社會主義國家들이 共同的 敵인 帝國主義를 反對하는 투쟁에서 상호 협력하고 支持, 聲援하는데는 적용되지 않으나, 韓國을 비롯한 西方國家들이 帝國主義의 두목인 美國과 軍事條約을 체결하고 협력하는 것은 ‘外勢·侵略’ 등으로 非難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北韓의 對外政策은 앞으로 그것이 閉鎖政策이건 開放政策이건 北韓 最高權力者의 주관적 해석에 의한 主體思想을 통해서 正當化될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開放化는 실제로 主體思想에 큰 影響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다만 開放化에 맞춰 主體思想을 융통성 있게 解釋하는 것만 남아 있을 것이다.

2. 體 制

北韓은 지난 40年 동안 一人獨裁偶像化體制 구축을 위한 철저한 閉鎖

44) 金正日, 「主體思想에 對하여」, 1982. pp. 49~50.

社會를 유지해 오면서 外部環境과의 接觸을 극도로 제한하여 왔기 때문에 體制의 硬直性과 劃一性을 면치 못했다. 北韓의 그러한 閉鎖社會는 金日成獨裁體制을 구축하는데 決定的인 공헌을 했으며 反對로 金日成 一人獨裁偶像體制은 北韓의 閉鎖社會를 오늘날까지 지속시켜 오는데 결정적인 要因이 되고 있다. 金日成은 北韓社會를 철저히 閉鎖시킴으로써 自身을 神的인 存在로 부각시켰고 北韓社會가 地上樂園인 것처럼 住民들에게 納得을 시켰으며 金正日로 하여금 自身の 權力을 承繼할 수 있는 內的 여건을 조성하는데 成功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北韓의 現體制가 온전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閉鎖社會가 계속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體制은 閉鎖政策의 變化에 맞춰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北韓은 경제적 여건개선을 위하여 社會를 開放하지 않으면 안될 立場에 처하게 되었으며, 北韓이 社會를 開放하게 되면 體制의 變化가 必然的으로 수반될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이 開放을 통해서 追求하는 戰略的 目標은 순조로운 權力承繼 등을 包含한 體制의 強化에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北韓은 開放化過程에서 침투하게 될 自由思想이 體制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思想意志의 統一團結’을 약화시킴으로써 體制安保에 심각한 威脅이 될 것을 우려하여 體制에 손상을 주지 않는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開放을 追求하고 있다.⁴⁵⁾

北韓의 政策의 우선순위는 開放化보다 體制의 維持에 있음이 分明하다. 北韓은 1984年 9月 8日, 최고인민회의 常設會議에서 「合營法」을 採擇하고 對外開放을 決定했으나 對外的으로는 즉각 선전을 하면서도 이들이 지난 後에야 ‘平壤放送’을 통해 겨우 報道했으며, 黨機關紙 「로동신문」이나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機關紙 「로동청년」 등 가장 중요한 신문매체에는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⁴⁶⁾ 이것은 北韓當局者들이 開放化가 體制에 미칠 影響을 우려하고 있는 증거이며, 北韓의 開放化는 體制維持를 위한 從屬

45) 「內外通信」, 第422號, 1985. 2. 15.

46) 「中央日報」, 1984. 10. 24.

變數로 밖에 作用할 수 없다는 것을 示唆한 것이다. 이러한 側面에서 볼 때 北韓의 開放化가 短期的으로 北韓의 體制에 미치는 影響은 크지 못할 것으로 分析된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北韓은 世界國家들의 開放 추세와 周邊強大國들의 對北韓 開放壓力이 더해짐에 따라, 漸進的인 段階를 거쳐 社會를 開放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北韓의 對西方諸國들과의 經濟交流는 住民生活의 向上을 가져와 그들의 意識構造를 變化시키고, 그것은 결국 體制의 점진적인 變化를 초래하는 過程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北韓의 開放은 오랜 시행착오의 過程을 거쳐 이루어 질 것이므로 途中에서 開放化의 過程이 政策的 必要에 依해서 후퇴되거나 포기될 가능성도 높다 하겠다.

Ⅵ. 展望 및 結論

北韓은 앞으로 經濟체제 脫皮를 위해 體制維持와 金正日 權力承繼에 손상을 주지 않는 範圍內에서 閉鎖的인 自力更生路線으로부터 漸進的인 開放經濟體制로 전환하여 世界 여러 나라들에게 選別的이고도 制限된 門戶를 開放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이미 1984年 9月 8日, 經濟開放政策을 표방한 以來, 合作投資 유치를 위한 해외교섭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北韓의 그러한 해외교섭 실태는 「合營法」 제정 以前보다 以後가 2倍에 達하고 있으며, 보다 特記할만한 사실은 對西方 교섭이 全體의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短期的으로 볼 때 北韓의 그러한 海外資本 및 技術 유치 시도는 北韓의 國際的인 테러집단의 이미지, 最下位 對外信用度⁴⁷⁾ 投資與件을 갖추지 못한 최일적인 統制社會, 外債상환 불이행 등의 理由로 海外企業들의 注意를 크게 끌지 못하는 狀況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長期的으로 볼 때 北韓의 開放政策은 오래 追求해 나가는 過程에

47) 109個國中 108位：韓國은 29位, 「서울신문」, 1985. 10. 6.

서 定着化될 수 있을 것이며, 西方國家들은 北韓의 侵略性 弱化라는 目標 아래 北韓의 開放政策 定着化를 促進시킬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北韓은 現在 合營의 實績이 그들의 期待에 못미치기는 하나 西方國家들로부터 漸進的인 反應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지금까지 10여개에 達하는 外國會社 및 個人間의 合資經營을 시작했으며, 그 가운데는 프랑스와 合資로 建設하는 40層짜리 「양각도國際호텔」, 日本과 合資經營하는 「낙원백화점」 및 「남포금속工場」, 홍콩과 合資經營하는 「합홍타이어工場」 등이 있다. 現在 北韓과 外國商社 및 個人間에 교섭중인 것은 30여건으로서 그 중에는 프랑스와 合作生産하는 술과 음료수工場, 스웨덴과의 合作家具工場, 泰國과의 合作罐工場과 西獨, 오스트리아, 印度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중에서 日本이 25件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 西獨 順으로 되어 있다.⁴⁸⁾

특히 日本 아베外相은 1985年 6月 20日, “日本이 北韓과 外交關係를 맺고 있지는 않으나 南北韓間의 對話擴大로 日本과 北韓間에 民間次元의 人的 交流가 增大되고 있다”⁴⁹⁾고 밝혔고, 9月, 15日 日本南海電鐵의 가와가쓰會長은 金日成과 만나 北韓과의 技術協力 및 合作投資 對象을 구체적으로 協議했으며 1986年 上半期에 經營實務代表團을 파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⁰⁾

이러한 추세는 北韓의 國際의 地位를 格上시키는 것이면서 北韓을 經濟的으로 開放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 北韓의 開放은 그들의 體制에도 影響을 주어 開放化에 適應할 수 있는 體制의 再定立過程을 거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北韓이 門戶를 開放하여 對南强硬路線을 완화시키고 近代化를 적극 추진하게 될 때, 우리의 平和定着 및 平和統一의 努力은 漸進的인 段階를 거쳐 結實을 맺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48) 「內外通信」, 第439號, 1985. 6. 4.

49) 「中央日報」, 1985. 6. 22.

50) 「韓國日報」, 1985. 9. 16.